

# 농촌사랑 도·농 한마당 잔치

## 양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盛了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지난 11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충빈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상원 시의회위원장, 각급 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실시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수입농산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제시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도농 한마음축제로 나누어 개최됐으며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공로한 임충빈 양주시장과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홍성수 지부장에게 농업인 단체협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수농업인 백석농촌지도자회 조근우씨 등 6명에게 양주시장상을 광적농촌지도자회 이종학씨 등 4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은원농촌지도자회 이숙형씨 등 4명에게 의회의장상을 회천농촌지도자회 김 명근씨 등 3명에게 농협지부장상을 수여했다.

1부 기념식에서 임충빈 양주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의 고급화와 유통구조개선, 선진기술의 개발보급에 힘써나갈 계획이라며 어려울수록 함께 논의하고 다같이 힘을 모아 잘사는 우리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부 행사에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풍타작 체험, 떡매치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와 노래자랑을 즐기는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침체된 농업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도시와 농촌이 다같이 잘사는 농정을 펼쳐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양주시는 지난 11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무공해 연천 현미 맛보세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쌀밥 같은 현미 출시

연천군의 임진강 상류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땅이 어우러져 재배된 쌀밥 같은 현미가 11월부터 본격 출하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쌀밥 같은 현미는 일반백미와 찰쌀의 중간인 품종을 현미로 상품화하여 까칠한 현미의 단점을 보완하고 쌀밥같이 부드럽고 찰진 맛을 내게 하여 현미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해 25톤 생산된 현미는 전량 판매가 되어 현재 800여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말칭 농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저농약) 인증을 취득한 쌀밥 같은 현미.

을 도입해 지난달 27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저농약) 인증을 취득하고 50톤의 쌀밥 같은 현미를 생산하여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생산된 현미는 1kg에 4천원으로 홈페이지(www.hyunmjra.com)와 농가에서 직판되고 있으며 농가에 소득을 올려주는 효과 농산물이 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어요”

### 어려운 이웃돕기 국수바자회

동두천시(시장 최용수) 중앙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회장 백덕인, 이문순)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국수, 목, 반대떡, 과일 등 음식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중앙동 관내 각급 사회단체장 및 동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해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300여만원은 우리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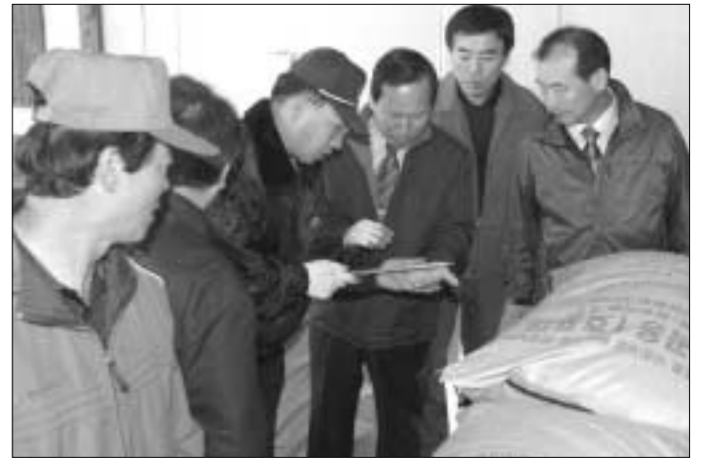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담가주기, 목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저농약) 인증을 취득한 쌀밥 같은 현미.

## 포토뉴스



### 2005년 추곡수매

입충빈 양주시장은 지난 9일 양주시 백석농협에서 실시한 2005년 공공비축미곡매입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양주쌀의 미질향상과 원활한 수매를 위해 관계자 및 농업인의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농업경연인,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동두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수농업인을 시상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 소방의 날 기념식

김규배 연천군수는 지난 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제43회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돼지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

대한양돈협회 연천군지부(지부장 박용석)는 지난 14일 연천군 전곡 읍민회관 앞 주차장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편중 소비현상을 적극 해소하고 우리 돼지고기 바로알고 바로 먹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천군청과 연천축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관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저소득층 응급지원비 지원 11,12월까지 2개월 간 신청

양주시(시장 임충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응급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응급지원비 지원은 가족의 사망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응급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는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1회, 의료비는 1인당 1백만원씩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이혼, 가구원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및 의료비 부담 등이 어려워진 경우와 과다 채무 등 가정상황의 악화로 가계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새마을부녀회,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 불우이웃 전달

양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대수)는 지난 15일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목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김장을 담가 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새마을부녀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지난 9월 새마을 부녀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민송동 인근의 장경지 1천여평에 배추 모종 작업을 하여 가꾼 것으로 지난 5일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 7천5백포기를 수확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기 행사를 하게됐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이번에 담긴 7천5백포기 사랑의 김장김치는 관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소년·소녀가장, 목거노인 등 145가정에 전달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양주골 딸기 맛 보세요”



높은 당도와 신선도를 유지해 양주시의 새로운 특화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양주골 딸기가 농협유통 양재농산물 물류센터에 출하되기 시작했다.

### 양주골 딸기 출하시작

높은 당도와 신선도를 유지해 양주시의 새로운 특화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양주골 딸기가 농협유통 양재농산물 물류센터에 출하를 시작했다.

양주골 딸기연구회(회장 우호희)가 노지에서 재배돼 1980~90년대를 풍미했던 양주딸기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시작했던 겨울철 비닐하우스 딸기재배는 회원들이 3년간 재배기술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지난 2003년 가라동 도매시장에 첫 출하됐다.

양주골 딸기는 매년 11월에서 출하를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 생산이 가능한 초축성 딸기로 적은 재배면적과 일손이 부족한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한겨울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 작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매년 규모도 늘어나 지난 2003년 4농가 비닐하우스 1천2백평에 불과했던 딸기 재배면적이 금년도에는 43농가에서 모두 3만평의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양주골 딸기가 생산되고 있다.

양주골 딸기가 서울의 창동 농협하나로마트와 가라동 도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안정된 친환경 비료공급과 관리로 맛과 당도 그리고 상품성의 균일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높은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일교차가 큰 경기북부지역의 농산물은 따뜻한 남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 당도가 높고 대규모 소비시장인 서울근교에 위치해 운송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주요인자로 꼽힌다.

양주골 딸기는 양주시가 2005년 경기도 선택형 맞춤형농업으로 신청해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또한 포장재 지원과 수정에 필요한 팔뚝 확보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요즘 하루 1.5kg포장들이 350~400박스 가 출하되고 있으며, 가격은 2만~2만5천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업체 대봉매리트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비닐 쇼핑백



### 비닐 제품



###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